

# 한·일 양국인의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 연구

: 일본어 교재와 담화 재현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윤석임 \_ 세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 목 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및 조사개요
- III. 분석 및 고찰
- IV. 결론

### 국문초록

일본어 교재와 일본어 학습자의 담화 재현 사례 비교를 통한,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의 고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선스 교재는 학습 요목을 따로 두어 일본인의 「겸손형」 거절 대사전략을 바탕으로 본문회화를 구성하고 있으며, 연습문제를 두어 학습자의 ‘거절’ 표현 습득을 돕고 있었다. 반면 한국출판 교재는 장면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요목의 필요에 따라 ‘거절’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둘째, ‘권유’ 표현의 경우 일본어 교재는 전형적인 표현 ‘しょうか・しましうか’ ‘しないか・しません(か)’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담화 재현 사례에서는 이 외에 비전형적인 표현도 다양하게 출현했다. 셋째로, 라이선스 출판 일본어 교재는 「겸손형」 거절 대사전략을 사용해 회화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언어 운동을 했으나, 담화사례에서는 「겸손형」 거절 대사전략과는 다른 ‘직접적인 거절’도 다

\* 이 논문은 2020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684)

수 있었다. ‘권유’에 대한 ‘거절’은 체면과 관계되는 행동으로 타인과의 인간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언어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과는 달리, 일본어 교재에서는 교수 요목으로서 취급되지 않거나, 매우 불충분했다.

#### 주제어

일본어 교육, 교재 분석, 담화 재현 사례분석, 권유 표현, 거절표현

---

## 1. 서론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언어·비언어 행동의 습득이 중시되고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최소화하는 사회성에 주목한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잘못 사용하면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언어 행위인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사용하는 현행 일본어 교재와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담화 사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하여, 향후 일본어 교재의 보완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가 출강하는 학교에는 일본의 대학에서 1년 동안 학업을 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 이곳에서 필자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강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강좌의 수강생은 일본에서 단기유학을 한 학습자가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강좌의 주목적은 한·일 양 언어의 언어 행동 양식과 커뮤니케이션 룰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터랙션 능력(실질행동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이 강좌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현지에서 생활하며 느낀 다양한 언어·비언어 표현 및 마찰장면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 간의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말하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가장 어려워하는 언어행동 중 하나는 ‘권유’에 대한 ‘거절’표현이었다. 한국인은 동년배의 일본인과 친해지고 싶어 다양한 방

법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모처럼의 권유를 부득이하게 ‘거절’해야 할 때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잘못 구사하여 인간관계의 장애를 겪기도 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장에서 발생하는 권유, 부탁, 제안, 거절, 감사와 같은 중요한 언어행동은 대조어용론, 대조사회언어학, 담화 분석, 화용론 등 여러 연구 분야에서 개개의 주제별로 연구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권유’에 대한 ‘거절’ 행동은 다른 언어행동에 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화자의 의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인간관계에까지 악역향을 끼칠 수 언어행위<sup>1)</sup>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어 교재는 문법적인 면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학습자의 인터액션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교재 분석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대학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교재를 대상으로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커뮤니케이션 장면과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며, 일본어 교재의 보완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및 조사개요

### 1. 선행연구

‘권유’ ‘거절’ ‘勧誘’ ‘誘い’ ‘断り’을 검색어로 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1) 青木咲野加, 「依頼および「勧誘」における「断り」表現の考察：日本語教材を素材として」, 『일본어문학』 제55호, 2011, p.72를 참조.

(RISS) 및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본 결과 총 139종의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거절’에 관한 언어행동 연구가 약 50%에 달했으며, 비언어 행동에 관한 연구는 2종으로 언어표현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였다.<sup>2)</sup> 분석 방법도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 집, 주고받은 메일 문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교재 분석은 원지은<sup>3)</sup>의 일본어 교과서 분석과 아오키(2012)의 일본어 회화교재 분석 2종에 불과했다. ‘권유’와 ‘거절’ 표현에 관한 연구 장면, 연구 초점,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권유<sup>4)</sup>, 거절, 승낙 표현에 관한 연구 현황

분류	장면(종)	연구 내용	분석 방법
비언어 (2종)	권유(2종)	신체 동작: 아이컨택, 얼굴표정	· 드라마
언어 (137종)	거절(70종)	응답 분석, 생략표현, 간접표현, 담화 분석, 문의 구조 분석, ‘考えてみる’ 등의 의미분석, 의미공식, 문형	· e-메일 · 휴대폰 메일 · 영화/드라마 시나리오 · 롤 플레이 · 실제 회화 사례 · 회화 교재 · 고등학교 교재
	권유(36)	술어부의 표현, 의미 용법연구, 거절 전략의 변화, 이유 표명, 이유 소재,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권유, 거절(18)	담화 분석, 생략표현, 간접표현, 의미공식, 대학교 일본어 회화 교재분석	
	거절, 승낙(8)	의미 용법연구, 의미공식	
	기타(5)	한일 언어행동 비교, 접촉장면 연구, 커뮤니티 케이션 양식 연구 등	

2) ‘권유’ ‘거절’에 관한 연구는 ‘감사’ ‘의뢰’ ‘부탁’ 등 화용론적 고찰에서 일부분으로 다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표 1〉은 이와 같은 부분적인 언급을 제외한 선행연구를 개략한 것이다.

3) 원지은, 『高校の日本語教科書で扱われる断わりの言語行動 - 談話完成テストの結果との比較を中心に -』, 『일본어문학』 제42집, 2008b, pp.59~74.

4) 蒲谷 宏 他, 『敬語表現』, 大修館書店, 1998, p.121을 참조. 가바야 외(蒲谷 他)는 ‘권유’에 대한 정의를 ‘발화자가 자각적인 행동 전개 의도를 가지고, 타자에 대해 행동하게 하는 행위(発話者が自覚的な行動展開の意図をもって、他者に対して働きかける行為)’라고 했으며, 본 연구는 이 정의를 따르고 있다.

‘권유’와 ‘거절’ 표현에 관한 연구는 <표 1>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특정의 표현에 대한 어용론(또는 화용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일본어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일본어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직접 관계되는 선행연구는 원지은(2008b)의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분석과 아오키<sup>5)</sup>의 일본어 교과서 분석이다.

원지은(2008b)은 제7차 일본어 교과서 12종으로부터 ‘권유’ 표현의 언어행동에 대해 조사했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서는 전형적인 ‘권유’ 표현 ‘しよう’ ‘しようか’ ‘しないか’)가, 비전형적인 ‘권유’ 표현인 ‘どうぞ’ 와 ‘~どうですか’ ‘~どうでしょうか’(상대방을 억지로 유인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정이나 의견을 조심스럽게 듣는 표현)보다 2배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은 원지은<sup>6)</sup>의 드라마 분석과 완전히 다른 결과로, ‘권유’ 표현은 ‘~しよう’ ‘~しようか’와 같은 전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의뢰표현, 의문표현, 의향 묻기 표현, 명령 표현, 기타 등 비전형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므로 교과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절실한 지도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권유’ 장면의 편중을 벗어난 보다 세분화된 장면이 필요하며, 어떤 상대에 대해 어느 장면에서 권유하느냐 등, ‘권유’ 표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대의 레벨도 고려한 상세한 설명이나 도입이 교과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오키(2012)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일본어 교고서 48종으로부터 ‘의뢰’에 대한 ‘거절’ 표현 38개,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 115개(상호관계 불분명 포함)를 수집했다. 그 결과 ‘의뢰’보다는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이 많이 제시되어 있음을 밝혔으며, ‘상하 관계’는

5) 青木咲野加 「『依頼』および『勧誘』における『断り』表現の考察：日本語教材を素材として」, 『일본어문학』 제55호, 2012, pp.71~90.

6) 元智恩, 「『白い巨塔』における日韓の勧誘の言語行動」, 『일본문화연구』 제25집, 2008a, pp.91~107.

동등한 관계에서, ‘친소관계’는 친한 관계에서 거절하는 장면이 많음을 밝혔다. 또한, 일본어 교과서에 나오는 ‘권유’ 장면은 함께 밥을 먹자는 장면이 대부분으로, 장면이 좁혀져 있음도 지적했다.

교과서는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도구로서 실제 수업에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 어떻게 실러버스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화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본어 교재에 한정된 분석으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현장에서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모어의 간섭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대학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본어 교재로부터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커뮤니케이션 장면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 2. 조사개요

조사 대상은, (1)현재 대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본어 교재와, (2)필자가 담당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강좌에서 학습자가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기억을 되살려 재구성한 담화이다. 일본어 교재 선정은 각 출판사에 문의하여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재를 추천받았으며,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의 레벨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입문단계에서 중급 또는 중·고급 단계까지 시리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한국출판의 경우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저자로 되어 있으며, 일어학 및 일어교육 전공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일본어 교재의 ‘권유’에 대한 ‘거절’ 장면은 학습자가 유학 중 마찰을 일으킨 장면과 서로 비교해 보았다. 이는 인위적으로 모델이 되는 장면을 설정한 일본어 교재의 장면 회화가 학습

자의 실제 회화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 실러버스의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이다. 조사 대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 대상이 된 교재와 재구성된 담화

① 현행 대학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본어 교과서								
-텍스트명	텍스트 레벨				출판사	비고		
A. 뉴코스 일본어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다락원	한국 출판		
B.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다락원	한국 출판		
C. 좋아요 일본어	일본어(1), 일본어(2), 일본어(3), 일본어(4), 일본어(5), 일본어(6)				동양북스	한국 출판		
D. 미니노 日本語	초급(1), 초급(2), 초중급(1), 초중급(2), 중급(1), 중급(2)				시사 BOOK	라이선스 출판: 스 리-어-네트-워 크		
E. Bunka NIHONGO	입문회화(1), 입문회화(2), 초급회화(1), 초급회화(2), 중급회화(1), 중급회화(2), 고급회화(1), 고급회화(2)				시사 BOOK	라이선스 출판: 文化外國語專門學 校-일본		
②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강좌에서 재현된 접촉장면								
강좌명	참가 자수	학년	성별	일본어 학습력	일본어 능력	일본 유학경험	강좌 시기	접촉장면 재현 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11 명	3학년 :5명 4학년 :6명	여:7명 남:4명	5년:2명 4년:4명 3년:5명	1급:2명 2급:9명	1년:11명	2021년 1학기	19개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한 주요 관찰항목은 다음과 같다.

a. 현재 대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본어 교재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권유’에 대한 ‘거절’표현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으며 교재별로 차이점은 있는가?

b.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에 있어 한·일 양국인의 마찰이 되는 언어 행동은 어떻게 표현되고 각 상황에서는 어떤 오해를 했는가? 그리고 어떤 형식

을 사용하는가?

c. 향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인터액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어 교재의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의 보완점은 무엇인가?

### Ⅲ. 분석 및 고찰

#### 1. 일본어 교재 분석

##### (1) 빈도 분석

이진선(李真善)<sup>7)</sup>은 영화와 드라마의 시나리오로부터 담화를 폭넓게 채집하였다. 그 결과, ‘권유’의 전형적인 표현으로는 ‘しよう(か)/しましよう(か)’ ‘しない(か)/しません(か)’ ‘する? / します(か)’ ‘しようよ’를, 비전형적인 표현으로는 ‘권유하는 표현의 ~どうぞ’ ‘의향을 묻는 표현의 ~どうですか)’ ‘정보제공의 明日、パーティーがあります’ ‘명령표현의 来てください(来てね)’ ‘의문표현의 明日、何か予定がありますか?’ ‘희망표현의 ~いっしょに行きたいですね’를 추출·제시했다. 그리고 아오키<sup>8)</sup>는 ‘의뢰’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을 의미공식별로 ‘직접적 거절(行けないよ、けっこうです)’ ‘애매한 거절(明日はちょっと、遠慮しておきます)’ ‘사죄(すみません), ’변명/ 이유(今日は忙しいので)’ ‘공감(せっかくだけど、残念ですが)’ ‘장래의 약속(終わったら連絡するね、また今後ともよろしくね)’ ‘조건 표현(暇だったらいきたいですが、日曜日なら行けますが)’ ‘생각할 시간을 갖는 표현(ええ、ああ、うーん、)’ ‘되

7) 李真善, 『談話展開構造と背後要因との関連性—「行動を促す表現」を中心に—』,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pp.87~123.

8) 青木咲野加 『「依頼」および「勧誘」における「断り」表現の考察：日本語教材を素材として』, 『일본어문학』 제55호, 2012, pp.71~90.

물음(상대에게 정보를 확인하는 것 今日ですか)’ ‘그 외(감사/ 화냄 등 先生あったらよろしくと行ってください、何とぼけたこといってるんだ)로 10분류했다. 조사 대상이 된 교재 32권의 본문회화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권유 표현 132개와 거절표현 14개의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교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일본어 교재에 사용된 ‘권유’ 표현

		형식	A 교재	B 교재	C 교재	D 교재	E 교재
권유표현	전형적인 표현	しよう(か)/しましよう(か)	32	8	15	9	17
		しない(か)/しません(か)	12	1	4	4	3
		する? / します(か)	1	-	-	-	-
		しようよ	-	-	-	-	-
사용빈도	비전형적인 표현	권유하는 표현	7	1	3	3	4
		의향을 묻는 표현	1	-	5	1	1
		정보제공	2	1	1	-	-
		명령표현	-	-	-	-	-
		의문표현	1	1	-	-	-
		희망표현	-	-	-	-	1
합계			52	12	28	15	25

〈표 4〉 교재에 사용된 ‘거절’ 표현

		A 교재	B 교재	C 교재	D 교재	E 교재
출현빈도		6	3	2	1	2
사용표현	① 변명/이유-생각할 시간(변명/이유) ② 사죄(변명/이유) ③ 애매한 거절 ④ 변명/이유-되물음 ⑤ 생각할 시간 ⑥ 변명/이유	① 사죄-변명/이유 ② 직접적 거-직접적 거절 ③ 사죄(변명/이유)	① 변명/이유-변명/이유-변명/이유 ② 직접적 거절(변명/이유)-장래의 약속	① 되물음-애매한 거절-변명/이유-장래의 약속	① 변명/이유-되물음 ② 되물음-변명/이유-장래의 약속	

‘권유’ 표현은 32권의 교재 모두 ‘しよう(か)/しまししょう(か)’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しない(か)/しません(か)’ ‘권유하는 표현(どうぞ)’이 뒤를 이었다. 한편, ‘する?/します(か)’ ‘의향을 묻는 표현 ~どうです(か)’ ‘정보제공’ ‘의문표현’ ‘희망표현’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었으며, ‘しようよ’와 ‘명령표현’은 제시되지 않았다.

‘거절’표현은 32권의 교재 대부분이 회화의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실제 거절할 때는 1회의 의미공식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의 발화에서 두 개 이상의 의미공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간격을 두고 ‘변명/이유-생각할 시간(변명/이유)’ ‘변명/이유-되물음’ ‘변명/이유-변명/이유-변명/이유’ ‘되물음-애매한 거절-변명/이유-장래의 약속’처럼, 다음 회화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이었다. 그러나 ‘거절’표현은 ‘권유’ 표현(또는 권유-승낙 표현)에 비해 실러버스 구성이 매우 부족했다. 이 중 한국출판의 A교재가 ‘거절’표현의 출현 횟수 6회로 가장 많았는데, 거절의 의미공식 10분류 중 ‘애매한 거절’이나 ‘생각할 시간 갖기’ ‘되물기’ 등 다양한 의미공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거절’ 표현은 본문의 회화 흐름의 구성상 필요에 의해 제시되고 있었을 뿐,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는 문법학습 요목이나 연습문제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B와 C교재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일본출판사와 라이선스를 맺어 출판한 D교재와 E교재는 회화 흐름에 따라 ‘되물음-애매한 거절-변명/이유-장래의 약속’, ‘되물음-변명/이유-장래의 약속’이 되풀이되는 다양한 거절의 의미공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마지막 대화로는 ‘また、今度お願いします’ ‘残念だけど、また今度誘って’ 라는 말을 사용해, 거절로 인해 잃어버릴 수 있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래의 약속’으로 거절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단순히 본문회화의 흐름상 필요에 의해 ‘거절’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습문제를 따로 두어 학습자가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 (2) 일본어 교재의 사례분석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은 E교재를 제외하고는 권유에 대한 긍정 표현과 함께, 비교적 입문 과정인 ‘~ます’형의 학습 단계(또는 그 이후)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거절의 의미공식 중에서는 ‘변명/이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겸遜형」 거절의 대사전략(「謙遜型」断りのストラテジー)에서 한국출판 교재와 라이선스 출판 교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메쿠로 아키코(目黒秋子)<sup>9)</sup>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의뢰’에 대한 ‘거절’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일본인은 간접적 발화행위의 하나인 「겸遜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은 「겸遜형」 거절의 대사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겸遜형」 거절의 대사전략이란 ‘ちょっと’ ‘行きたいけど’ ‘かんがえておく’ ‘~かもしれない’와 같은 중립적인 표현이나 부정을 암시하는 말로, 상대방의 ‘권유’나 ‘제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눈치채게 하여 화자(권유한 사람) 스스로 거두어들이게 하는 언어운용을 말한다. 다음의 【사례1】은 ‘동사 ~ない형’의 학습을 위해 구성된 본문 회화로, ‘~ない형’ 학습을 위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ないといけません)’를 학습요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회화 장면이 ‘권유’에 대한 ‘거절’ 장면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부자연스러운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인 오(吳)는 일본인 가토(加藤)에게 가라오케에 함께 가기를 권유하는 장면이다. 오의 권유에 가토는 갈 수 없지만, 먼저 ‘いいですね’라고 「겸遜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사용한 뒤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이에 오는 되풀이하여 다시 ‘내일 갈 수 있는지’ 묻고, 이에 난감한 가토는 다시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번에는 ‘すみません’ 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9) 目黒秋子, 「謙遜型」断りのストラテジー, 『東北大学文学部日本語学科論集』第4号, 東北大学文学部日本語学科, 1994, pp.99~110.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사용한다. 보통의 일본인이라면 이 정도에서 ‘거절」 의사를 눈치채고 ‘권유」를 스스로 거두어들일겠지만, 한국인은 또 다시 ‘모레 갈 수 있는지」 묻는다. 이에 다시 한번 가토는 ‘すみません」 이라고 말하며,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사용한다. 이와 달리 한국인은 일본인의 거절표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자신의 권유나 제안에 대한 가능 여부를 전하고, 이에 대해 yes인지 no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례1】은 한국인의 대화 방식을 일본어 교재에 그대로 채용한 사례라 볼 수 있다. 각 과의 학습 요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학습자가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1: C교재-step3】

吳：授業の後、カラオケにいきませんか。

加藤：いいですね。でも、病院にいかないといけません。

吳：明日はどうですか。

加藤：すみません。明日は朝まで寝ないでバイトをしないといけません。

吳：あさっては どうですか。

加藤：すみません。あさっては家に帰って掃除をしないと いけません。

吳：じゃあ、また 今度・・・。

이상의 【사례1】과 비슷한 예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역할만이 반대로 바뀐 장면 회화를 C교재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의 【사례2】는 동사를 활용한 권유·청유표현인 ‘～ませんか’ ‘～ましょう’ ‘～ましょうか’의 학습을 위해 구성된 본문회화이다. 그러나 ‘권유」에 대한 ‘거절」 장면이 부자연스러운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인 김지후와 일본인 히로토(ひろと)의 회화장면이다. 김지후는 며칠 전 히로토의 공부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며칠 후 다시 히로토가 김지후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회화가 구성되어 있다. 그

런데 이 장면에서는 일본인 히로토가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인 김지후가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히로토의 눈치 없는 끈질긴 권유에 김지후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함께 공부하기로 한다.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선호하는 일본인은 상대방의 권유나 제안을 직접 'No'라고 거절하는 것에 대해 강한 심리적 저항감을 느낀다. 그래서 거절하는 일이 있을 때 일본인은 'すみません' 이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회화에서는 히로토가 자신의 권유나 제안에 대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먼저 전하고 있으며, 김지후가 오히려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일본어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이라고 하는 저자의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인 학습자는 이문화간의 서로 다른 '거절' 방법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학습될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할 할 수 있다.

【사례2: A교재-step1】

ひろと：金さ一ん、今日も一緒に勉強しましょう。  
 金：今日は暑いから、私は図書館で勉強しまーす。  
 ひろと：じゃあ、一緒に行きましょう。  
           一人より一緒のほうが楽しいですから！！  
 金：えーと、でも、すごく遠いですから…。  
 ひろと：大丈夫 大丈夫。行きましょう。今日は宿題が多くて大変ですよ～。  
 金：……。はい。

라이센스 교재는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적절히 활용하여 회화를 구성하고 있었다. 아래의 【사례3】에서 기무라(木村)는 미라(ミラー)가 콘서트에 함께 가자는 권유에 'いいですね'라고 말하며 언제인가를 묻는다. 그리고 시간이 맞지 않자 'No'라고 하는 말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 '金曜日の晩

は ちょっと'友達と約束がありますから、……' 라고 하는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사용하여 미라가 자신의 마음을 읽어 주기를 바란다. 이에 미라는 기무라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음을 약속하며 회화가 마무리된다. 이는 【사례4】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사례4】는 요시코(良子)가 교코(京子)에게 수영장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교코는 가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行きたいけど,'라고 말하며,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 이에 요시코는 교코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코는 유감을 표현하며 다음을 기억한다. 이와 같은 회화 패턴은 일본인의 '권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절' 방법이다. 라이선스 출판의 두 교재 모두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었으며, 학습자가 이러한 언어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문형 연습과 연습문제를 따로 두어 충분히 학습도록 실러버스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유'에 대한 '거절'표현이 D교재는 총 5권 중 1회(되물음 → 애매한 거절 → 변명/이유 → 장래의 약속), E교재는 총 8권 중 2회(변명/이유 → 되물음, 되물음 → 변명/이유 → 장래의 약속)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상대방과의 '공감'을 표하며 거절하거나 조건 표현을 사용하여 거절하는 등 보다 다양한 의미공식을 사용한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제시가 필요하다.

【사례3: D교재-step3】

ミラー：あのう、木村さん、小沢政治のコンサート、いっしょにいかがですか。

木村：いいですね。いつですか。

ミラー：来週の金曜日の晩です。

木村：金曜日ですか。金曜日の晩はちょっと……

ミラー：だめですか。

木村：ええ、友達と約束がありますから、……

www.kci.go.kr

ミラー：そうですか。残念ですね。

木村：ええ、また 今度 お願いします。

【사례4: E교재-step1】

吉田良子：もしもし、小野さんのお宅ですか。吉田と申します。

小野京子：ああ、良子さん。元気？

良子：うん。武さんが、プールの招待券を持っているの。明日行こうと思  
っているんだけど、京子さんもいっしょに行かない？

京子：明日？

良子：うん。

京子：行きたいけど、明日はアルバイトがあるの。

良子：あら、そう。

京子：残念だけど、また今度誘って。

良子：うん、じゃ。またね。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은 양국인의 언어행동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항목으로, 마찰이나 오해는 모어 화자끼리의 회회보다도 대부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문화간의 커뮤니케이션상에서 발생한다. 메쿠로<sup>10)</sup>는 일본인의 ‘겸손형’ 거절표현은 간접 발화행위의 대화 전략으로, 외국인 학습자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이 루미(清ルミ)<sup>11)</sup>에 의하면 외국인은 일본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장면이 ‘거절 장면’이며, 외국인은 일본인의 거절 의사를 잘못 이해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명할 때 일본어로 적절하게 구사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10) 目黒秋子, 「謙遜型」断りのストラテジー, 『東北大学文学部日本語学科論集』第4号, 東北大学文学部日本語学科, 1994, p.104.

11) 清ルミ, 「外国人社員と日本人社員-日本語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阻むもの」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第10輯, 神田外語大学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 1997, pp.57~73.

어 교재보다 다양한 일본인의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을 실러버스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2. 학습자 담화 분석

### (1) 빈도 분석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의사 전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체면과 관계되는 행동으로, 이문화간의 언어표현의 차이는 서로의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복잡한 일본인의 발화행위를 한국인 학습자에게 적절히 지도하기 위한 시초로서 교과서의 회화장면을 분석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회화 장면과 실제 커뮤니케이션상에서 학습자는 어떠한 마찰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로부터 마찰 상황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대화로 재구성해 받았다. 그 결과 재현된 마찰 사례를 19건 수집하였다. 재구성된 담화에 사용된 ‘권유’ 표현은 37개, ‘거절’ 표현은 32개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담화 재현 사례에 사용된 ‘권유’ 표현

		형식	일본인	한국인
권유표현	전형적인 표현	しよう(か)/しましよう(か)	2	8
		しない(か)/しません(か)		6
		する? / します(か)	9	
		しようよ	2	
사용빈도	비전형적인 표현	권유하는 표현	3	
		의향을 묻는 표현	2	
		정보제공	2	
		명령표현		
		의문표현		
		희망표현	2	
합계			22	17

〈표 6〉 담화 재현 사례에 사용된 ‘거절’ 표현

	일본인	한국인
출현빈도	17	15
사용표현	① 애매한 거절-변명/이유 (8) ② 직접적 거절 (3) ③ 사죄-변명/이유 (3) ④ 생각할 시간을 갖는 표현-변명/이유 (3)	① 직접적 거절 (6) ② 사죄-직접적 거절 (5) ③ 변명/이유 (3) ④ 애매한 거절 (1)

‘권유’ 표현은 일본인의 경우는 ‘する?/します(か)’가 9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비전형적인 표현도 골고루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인은 ‘しよう(か)/しましよう(か)’와 ‘しない(か)/しません(か)’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교과서 분석에서도 32권 모두 ‘しよう(か)/しましよう(か)’와 ‘しない(か)/しません(か)’가 어떤 형식보다도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학습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거절’ 표현은, 일본인의 경우는 ‘애매한 거절’과 ‘변명/이유’의 의미공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직접적 거절’과 ‘사죄-변명/이유’ ‘생각할 시간 갖기’ 등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인은 ‘직접적 거절’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애매한 거절’은 1건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띈 점은 ‘거절’표현에 있어서 일본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거절’의 의미공식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재 분석에서는 일본인의 ‘변명/이유’나 ‘애매한 거절’ 등 「겸손형」 거절표현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인 학습자는 스스로는 ‘직접적 거절’의 의미공식을 사용하면서도 일본인에게 ‘직접적 거절’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했다.

## (2) 담화 재현 사례분석

각 나라의 문화적 관습에 따라 ‘권유’에 대한 ‘거절’ 방법은 상당한 차이

가 있다. 그러나 한국인과 일본인의 경우는 ‘직접표현을 선호하는 한국인’과 ‘간접표현을 선호하는 일본인’으로 결론지어져 왔다. 그러나 이 의미는 한국인이 간접적인 ‘거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며, 일본인 또한 직접적인 거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학습자의 담화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인도 직접거절을 하는 사례가 많았고, 한국인도 간접거절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단, 직접거절은 일본인은 잘 모르거나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권유받았을 때 사용했으며, 한국인은 일본인의 돌려 말하는 권유의 의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거절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간접거절은 일본인은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으로 회화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진행하거나 애매하게 거절하는 것에 비해, 한국인은 회화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상대방에게 다른 행동을 요구하기 위한 간접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음의 【담화 재현 사례1】과 【사례2】는 일본인의 애매한 거절이며, 【담화 재현 사례3】은 한국인의 애매한 거절사례이다.

【담화 재현 사례 1: 일본인의 애매한 거절 → 변명/ 이유 → 장래의 약속 → 변명/ 이유】

韓国人：あの。明日、一緒に映画でも見に行かない？

日本人：映画？いいね！あ、でも・明日はちょっと・・・レポートもあるし・・・。

韓国人：あ、そう？

日本人：うん、ごめん。また、今度誘ってね。

(何日後)

韓国人：今日はどう？

日本人：何？

韓国人：前の映画のこと！

日本人：あ、今日は友達と約束があるのよ。

韓国人：あ、そう・・・。じゃ、明後日はどう？

www.kci.go.kr

日本人：ごめん、明後日もちょっといろんなことで忙しくて…。

韓国人：あ…分かった。

【담화재현 사례 2: 일본인의 애매한 거절→ 생각할 시간, 애매한 거절】

ジョン：圭子さん、今度はいつ会う？

圭子：いつでもいいけど……。

ジョン：じゃ、今度の土曜日にね？

圭子：土曜日はちょっと……。

ジョン：(今いつでもいいって言ったばかりなのに)

じゃ、いつがいいの？

圭子：うーん、そうね。最近、ちょっと忙しいからね。

ジョン：(圭子さんが何を考えているか、分からない。)

【담화재현 사례3: 한국인의 애매한 거절】

(점심시간, 밥을 먹으려고 밖에 나와 식당을 찾는 중)

さとみ：なにを食べる？

ミンヒ：なんでもいいよ。

さとみ：じゃ、カレーはどう？

ミンヒ：うん、いいよ。あの店にする？

さとみ：いいよ。

あ、ミンヒちゃん、あそこはどう？

(カレー屋とちょっと離れたところの店の前に多くの人たちが並んで待っている。)

ミンヒ：あそこ？ ちょっと人、多くない？

さとみ：うん、でもあれだけ人が並んでいればすごくおいしい店かも。

ミンヒ：(いやな顔で) でも…。

【담화 재현 사례1】은 앞에서 언급한 일본어 교과서 【사례1: C교재-step3】과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인이 내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는 제안

www.kci.go.kr

에 일본인은 ‘ごめんね’ 이라고 말하며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사용한다. 한국인은 일본인이 레포트로 바쁜 줄 알고 거절을 받아들이지만, 수일 후 다시 영화를 보러 가기를 권유하고 이에 다시 일본인이 거절하는 장면이다. 한국인은 자신의 권유나 제안에 대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먼저 알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또다시 수일이 지나 영화 보러 가기를 다시 권유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 실제로 일본인이 영화를 함께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대화의 서두에서 앞서 언급한 텍스트의 【사례3: D교재-step3】처럼 날짜를 맞추어 보고 거절을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마찰 사례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거절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담화 재현 사례2】도 마찬가지로이다. 지영의 영화 권유에 게코(圭子)가 ‘いつでもいいけど……’ 라고 말하자, 지영은 바로 약속 날짜를 잡고자 하지만 거절이 중복되고 이에 답답한 한국인은 ‘じゃ、いつがいいの’ 라고 말하며 재촉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한편, 【담화 재현 사례3】은 한국인의 애매한 거절사례로, 점심시간에 한국인 민희와 일본인 사토미(さとみ)가 점심밥을 먹기 위해 가게를 찾고 있는 장면이다. 점심시간이라 가게는 여기저기 붐비고, 민희는 그중에서 가장 사람이 없고 조용한 가게를 골라 그곳으로 가자고 한다. 하지만 사토미는 ‘いいよ’라고 대답하지만 어쩐지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다. 그리고는 가장 사람이 많이 줄지어 있는 가게에서 밥을 먹자고 한다. 이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민희는 ‘저기? 좀 사람, 많지 않아?(あそこ? ちょっと人,多くない?)’라는 표현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며 웬만하면 빨리 먹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한다. 즉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고 덧붙여, 다른 행동을 요구하는 ‘행동 요구’의 의미공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러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가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문화를 갖는 일본인 사토미는, 사람들이 많은 가게는 그만큼 기다려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でもあれだけ人が並んでいればすごくおいしい店かも’라고 자신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김정헌(金楨憲)<sup>12)</sup>은 한국인 일본어 화자와 일본어 모어 화자의 ‘거절’표현의 전략 연구에서 ‘이유+대안 제시’+‘행동 요구’, ‘조건 제시’+‘행동 요구’, ‘행동 요구’, ‘조건 제시’, ‘그만 생각하도록 하기’, ‘회피’, ‘직접적 거절’의 7개의 의미공식을 사용했다. ‘행동 요구’의 의미공식은 일본어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他の人に聞いてもらえますか?)’ ‘점장님, 조금 더 생각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店長もうちょっと考えていただけますか?)’처럼 상대방으로부터의 권유나 제안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확실한 거절 의사를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류마오(劉淼)<sup>13)</sup>에 의하면 ‘행동 요구’는 일본어 모어 화자가 사용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한국인의 ‘행동 요구’ 표현은 거절할 때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권유할 때에도 종종 나타난다.

**【담화재현 사례4: 한국인의 ‘행동 요구’ 표현】**

(귀국 전, 일본인 친구와 식사한 후, 차를 마시러 장소를 이동하려고 하는 중)

日本人友だち：お茶は何にする？

스아：○○カフェーへに行こうよ。あのカフェーのケーキ、本当においしい!

日本人友だち：(笑いながら)ううん・・・そうね。

스아：では、あのカフェーへ行ってお茶でも飲もう。

日本人友だち：あ・・・でも、今雨も降ってるし、ちょっと・・・。

스아：あのカフェーは雨が降ると、もっと雰囲気がいいよ。

12) 金楨憲, 「依頼における「断り表現のストラテジー-韓国語話者と日本語母語話者の1対1の自然談話から」, 『일본근대학연구』 제24집, 2009, pp.41~56.

13) 劉淼, 『한국인·중국인 일본어학습자의 거절표현의 담화구조 연구 : 일본어 모어화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20, p.58.

日本人友だち：そうか・・・。

私：(行きたくないのか・・・)

【담화 재현 사례4】는 한국인 수아가 귀국하기 전에 일본인 친구를 만나 함께 점심을 먹은 후 차를 마실 장소를 정하는 장면이다. 수아는 귀국하기 전이었으므로 먹고 싶었던 케이크가 있어 ‘그 카페 케이크, 정말 맛있어! (あのカフェのケーキ、本当においしい!)’라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행동을 요구한다. 이에 일본인 친구는 ‘〈웃으면서〉 응... 그렇지(〈笑いながら〉うん... そうね。)’라고 싫은 내색 없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수아는 조금 더 부탁하면 함께 가줄 것 같아 다시 한번 부탁한다. 이에 일본인 친구는 ‘아... 하지만 지금 비도 내리고 좀...(あ... でも今雨も降っているし、ちょっと...)’이라고 말하고, 수아는 비 때문에 좀 꺼리나 싶어 ‘그 카페는 비가 내리면 분위기가 더욱 좋아 (あそこは雨が降ると、もっと雰囲気がいいよ)’라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요구한다. 이에 일본인 친구의 반응이 탐탁지 않자 간다는 건지 안 간다는 건지 알 수 없어, 수아의 기분이 상한 상황이다. 한국인의 ‘행동 요구’표현은 담화가 진행될수록 수위가 점점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 학습에 있어 한국인 스스로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예의를 지켜 일본어를 바르게 구사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도 방법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의 【담화 재현 사례5】는 일본인의 ‘직접적 거절’ 사례이며, 【담화 재현 사례6】은 한국인의 ‘직접적 거절’의 사례이다.

【담화 재현 사례5: 일본인 직접거절】

(이와 김은 유원지에서 귀가하려는 중에,추첨으로 관람차 무료 티켓이 당첨되었다.)

www.kci.go.kr

李： う～ん…。観覧車はもう乗ったし…。このチケット、どうしようかな。  
(その時、ちょうど観覧車に乗ろうかどうか迷っている日本人カップルが目についた。)

金： あの、よかったらこのチケット、使いませんか。

日本人のカップル： あ、いいんです。

金： 本当にいいんですか。私たちはもう観覧車は乗りましたし、このチケットも福引であたったもので、無料でもらったものなんで…。

日本人のカップル： いいえ。それでも、いただくわけにはいけません。

金と李： (せっかく‘あげる’って言ってるのに何で断るかしら。)

한국인인 김(金)과 이(李)가 일본의 유원지에 놀러 갔을 때의 일이다.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며 재미있게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중에, 경품추첨 행사에 참여하여 무료 관람차 탑승권을 받게 된 상황이다. 이미 관람차를 탔던 두 사람은 이 티켓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마침 관람차를 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듯한 일본인 커플을 발견하고 다가가 무료티켓을 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웬지 일본인 커플은 ‘아 괜찮아요(あ、いいんです)’라는 말로 망설이는 기색조차 없이 거절한다. 일본인의 경우 아무리 무료티켓이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권유받으면, 공짜로 타게 되어 기쁜 마음이 들기보다는 먼저 이를 제안한 사람이 의심스럽고 수상쩍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혀 모르는 타인이므로 인간관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므로,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거절을 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를 몰랐던 한국인은 자신들도 공짜로 받은 티켓이니 괜찮다며 사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차 권유하지만, 일본인 커플은 ‘아니요. 그렇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いいえ。それでも、いただくわけにはいけません)’는 말로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한다

다. 이에 한국인은 기껏 마음을 써서 티켓을 주려 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매우 당황스러워한다. 메쿠로<sup>14)</sup>는 친소관계에 있어 일본인의 ‘권유’에 대한 ‘거절’은, ①(싫다고 말하는 형(嫌型), ②거짓말형(嘘型), ③연기형(延期型), ④속임형(ごまかし型), ⑤겸손형(謙遜型)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남녀별 사용빈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이 중 ‘嫌型’은 ‘할 수 없습니다(できません)’ ‘거절하겠습니다(お断りします)’ ‘사양하겠습니다(遠慮します)’ ‘싫습니다(嫌です)’ ‘하기 싫습니다(やりたくないです)’ 처럼 분명하게 싫다고 말하는 것으로, 남자 52%와 여자 54%가 친한 동급생에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이때 분명하게 ‘싫어(いや)’라고 말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했다. 반면, 친하지 않은 동급생에 대해서는 남자 18%와 여자 16%만이 직접거절을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담화 재현 사례5】는 전혀 다른 타인으로부터 무료티켓을 권유받는 상황에서 일본인의 직접거절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절 전략이다. 이 외에 일본인의 직접거절을 한 사례는, 만원 전철에서 임신부나 연세가 있는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고 앉아 계세요(いいんです。お気遣いなく、どうぞ)’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いやいや、けっこうですよ)’ 처럼 거절한 경우였다. 결국, 한국인의 중복된 권유에 전철 안의 시선은 이들에게 쏠렸고, 결국 자리를 양보받은 임신부나 어르신의 표정이 매우 곤란해 보였으며, 한국인은 좋은 일을 한 것이 분명한데 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는 일본인은 타인의 시선을 받는 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치는(迷惑をかける)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본인의 심리를 한국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4) 目黒秋子, 「謙遜型」断りのストラテジー, 『東北大学文学部日本語学科論集』第4号, 東北大学文学部日本語学科, 1994, pp.102~103.

다음은 한국인의 ‘직접적 거절’ 사례이다. 한국인은 일본인과 대화할 때, ‘싫습니다(いやです)’ ‘할 수 없습니다(できません)’ ‘안 됩니다(だめです)’처럼 직접표현을 사용하여, 일본인이 당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장면으로는, 일본인이 권유해 주기를 암시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이 직접 거절하여 인간관계가 틀어진 사례였다.

【담화 재현 사례6: 일본인 애매한 권유-한국인 직접거절】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동료인 야마다와 빵집에 감)

山田：何にする？

ゾンウ：私はクロワッサンがいいね。おいしそう。

山田：じゃ、私はチョコパンか。

ゾンウ：ああ、うまい。

山田：チョコパンもおいしいね。チョコパン、食べたくない？

ゾンウ：ううん、大丈夫!

山田：あ、そう。

ゾンウ：あ、全部食べちゃった。やっぱりクロワッサンおいしい。

山田：あ、そう.....。

(二日後、アルバイト先で山田に会う。加藤はいつもとは違って、私にあんまり話しかけない。)

ゾンウ：(今日、私、何かミスでもしたのか...)

한국인 종우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일본인 동료 야마다(山田)와 함께 제과점에서 빵을 먹는 장면이다. 야마다는 종우에게 초콜릿 빵과 크루아상 중 무엇을 먹을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종우는 크루아상을 먹겠다고 말한다. 종우가 맛있게 빵을 먹고 있을 때, 야마다가 종우에게 ‘초코빵도 맛있네. 초

코빵 먹고 싶지 않아? (チヨコパンもおいしいね。チヨコパン、食べたくない?)'라고 물어보지만, 종우는 초콜릿 빵이 그다지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괜찮아!(ううん、大丈夫!)'라고 말하고, 자신의 크루아상을 전부 먹어버렸다. 이 일이 있던 이틀 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갔을 때 종우는 아마다에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아마다의 태도가 예전과 달리 냉랭하게 자신을 대하자, '오늘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나..(今日、私、何かミスでもしたのか···)'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 만약 일본인끼리의 대화라면 아마다가 내 초콜릿 빵을 먹고 싶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바로 아마다의 마음을 읽고 내 크루아상도 먹어보겠냐고 대답했을 것이다. 즉, 아마다는 종우의 크루아상을 먹어보고 싶다고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자신의 초콜릿 빵을 종우에게 권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크루아상을 맛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돌려 말하는 일본인의 화법을 알지 못했던 종우는, 친구의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눈치 없게 크루아상을 혼자 다 먹어버렸다. 아마 일본인 친구의 눈에는 맛있어하며 크루아상을 혼자 다 먹어버린 종우가 눈치 없고 얄밋게 보였을 것이다.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은 앞서 언급했듯이, '직접표현을 선호하는 한국인'과 '간접표현을 선호하는 일본인'처럼 언어행동이 극명하게 차이나는 항목으로 오해나 마찰의 원인이 된다. 한국인은, 일본인이 'あ、ちょっと...' 'いきたいんだけど...' 처럼 말을 애매하게 흘림으로써 모아 화자끼리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절의 암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국 문화의 언어습관을 그대로 적용해 확답을 요구하거나 재촉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일본인은 싫다는 데도 답을 요구하는 한국인이 집요하게 느껴지고, 한국인은 일본인의 계속되는 거절에 체면이 깎이어 불쾌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인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를 가진 일본인은 간접표현을 선호한다고 학습되어 '일본인=배

려=간접표현'과 같은 공식이 무의식 속에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일본인 으로부터 직접적인 거절을 받으면, 순간 당황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일본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통한 일본어 언어 운용능력의 향상 방안이 요구된다..

## IV. 결론

본 연구는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을 대상으로, 현재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교재와 학습자의 담화 재현 사례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하여, 향후 일본어 교재의 보완점을 찾고자 했다. 고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출판 교재와 라이선스 출판 교재는 실러버스 구성면에서 차이가 컸다. 일본 교재는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의 학습 요목을 따로 두어 일본인의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본문회화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연습문제를 따로 두어 학습자가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출판 교재는 장면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요목의 필요에 따라 '거절'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거절' 표현을 습득하기 어려웠다. 또한, 본문회화 구성도 학습자의 흥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 학습자는 이문화간의 서로 다른 '거절'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학습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둘째로, 한국출판 교재와 라이선스 출판 교재 모두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보다, '권유'에 대한 '승낙'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교재에 사용된 '권유' 표현은 대부분 전형적인 표현 'しょうか・みましょうか' 'しないか・しません(か)'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한국인 학습자의 실제 담화 재현 사례에서도 이상의 전형적 표현만이 사용되고 있어, 학습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

었다. 이에 비해 담화 재현 사례에서는, 일본인은 ‘する/しますか’의 전형적인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권유하는 표현’ ‘의향을 묻는 표현’ 정보제공 ‘희망표현’ 등 비전형적인 표현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의 일본어 교재는 전형적인 표현과 함께 비전형적인 표현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등 실러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로, ‘거절’ 표현은 라이선스 출판 교재 분석 결과, ‘되물음’ ‘애매한 거절’ ‘변명/이유’ 등의 의미공식을 사용한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으로 회화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진행하여 애매하게 거절하는 언어운용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담화 재현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일본인은 이 외에도 ‘직접적인 거절’처럼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과는 다른 의미공식도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인의 ‘직접적인 거절’은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 학습자의 ‘일본인=배려=간접표현 선호’와 같은 공식이 무의식 속에 작용하여 오히려 큰 상처가 되기도 했다. 일본인은 상하 관계에서는 동등한 관계에서, 친소관계에서는 친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거절’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권유’에 대한 ‘거절’표현에서도 이를 반영한 실러버스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로, ‘거절’ 표현의 의미공식 중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권유를 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고 이에 더해 상대방에게 다른 행동을 요구하는 ‘행동 요구’의 의미공식이 있다. ‘행동 요구’의 의미공식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에서도 많이 사용되며, 확실한 거절 의사를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겸손형」 거절의 대사전략과 함께 ‘행동 요구’의 의미공식도 교재에 도입하여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거절’ 표현을 구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한·일 양국인의 언어행동 차이에 관한 연구로는 ‘권유(의뢰)’ ‘거절’에 대한 것이 많다. 이는 ‘권유(의뢰)’에 대한 ‘거절’은, 거절당한 사람이나 거절한 사람 모두의 체면과 관계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과 달리, 일본어 교재에서의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의 실러버스 구성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최근, 외국어 학습에서는 ‘언어 운용능력’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일본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에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언어를 통해 일본문화를 이해하고, 일본어 운용에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금후의 과제는 더욱 많은 담화사례를 수집하여, 상하 관계와 친소관계에 따라 한·일 양국인의 ‘거절’ 표현의 상이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일본어 교재의 각 단계에 어떻게 제시해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고찰하는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3년 4월 26일

논문 심사일 : 2023년 5월 5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5월 20일

## 참고문헌

### 〈한글 문헌〉

- 劉森, 『한국인·중국인 일본어학습자의 거절표현의 담화구조 연구 : 일본어 모어화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20.
- 마쯔바라 요시코, 「상하, 친소관계로 본 “수락”과 “거절”에 대한 표현유형 양상」, 『일어일문학연구』 제88집 1권, 2014.
- 아오키 사야카, 「한일 「거절」표현의 대조연구 : 교재분석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제61집, 2012.

### 〈일본어 문헌〉

- 青木咲野加 「『依頼』および『勧誘』における『断り』表現の考察 : 日本語教材を素材として」, 『일본어문학』 55, 2011.
- 生駒知子·志村明彦 「英語から日本語へのプラグマティック・トランスファー : 「断り」という発話行為について」, 『日本語教育』 79号 日本語教育学会, 1993.
- 李真善 『談話展開構造と背後要因との関連性—「行動を促す表現」を中心に—』,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3.
- 任炫樹 「日韓 「断り」 談話に見られる理由表現マーカー : ウチ・ソト。ヨソという観点から」, 『日本語科学』 15, 2004.
- 元智恩, 「『白い巨塔』における日韓の勧誘の言語行動」, 『일본문화연구』 제25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8a.
- \_\_\_\_\_, 「高校の日本語教科書で扱われる断わりの言語行動 - 談話完成テストの

- 結果との比較を中心に-, 『일본어문학』 제42집, 일본어문학회, 2008b.
- 蒲谷宏他, 『敬語表現』, 大修館書店, 1998.
- 金楨憲, 「依頼における「断り表現」のストラテジー—韓国人日本語話者と日本語母語話者の1対1の自然談話から—, 『일본근대학연구』 24, 2009.
- 清 ルミ, 「外国人社員と日本人社員—日本語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阻むもの」,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第10輯, 神田外語大学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 1997.
- 松原嘉子, 「日本語の「受諾」と「断り」に関する一考察—表現類型と意味公式の観点から—, 『일본언어문화』 제28집, 2014.
- 宮地 裕, 「依頼表現の位置」, 『日本語学』 14(11), 明治書院, 1995.
- 目黒秋子, 「謙遜型断りのストラテジー」, 『東北大学文学部日本語学科論集』 第4号, 東北大学文学部日本語学科, 1994.

## Abstract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Rejection' on the 'Suggest' of Koreans and Japanese: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Japanese textbooks and discourse reproduction cases

Seok-yim, Yoon

This study examined the expressions of 'rejection' on the 'suggest' from Japanese textbooks and discourse example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reached. First, the license text has separate learning points so that learners can acquire the expression of 'rejection' in Japanese by organizing text conversations based on the Japanese's 'modesty line strategy'. On the other hand, Japanese textbooks published in Korea used the expression 'rejection' according to the flow of textual conversation. Second, in Japanese textbooks, the typical expressions 'shiyouka/shimasyouka' and 'shinaika/shimasenn(ka)' forms of 'rejection' were used the most. However, in the discourse case, not only typical expressions but also atypical expressions were used in various ways. Third, the license publication text was rejected by progressing the conversation step by step based on 'modesty line strategy'. However, in the discourse case, there was also a 'direct rejection' that was different from 'modesty line strategy'.

## Key words

Japanese language education, text analysis, discourse reproduction case analysis, suggest expression, rejection expression